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清香 (48X48—Acrylic on Canvas)

• 2017세대 아침, 가족 여러분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올 한해 1년 동안 어쭙찮은 제 그림이 정유년 캘린더와 소식지의 얼굴이 된대요. 20수 년 전, 은사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맑고 향기롭게의 이미지를 풀어서 그려보았습니다. 丁酉年, 금년에도 우리모두 자비행을 실천하며 복 많이 지으시길...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꽃은 흠에서 핀다	10	새로운 시작
古典을 읽다	15	헤르만 헤세 장편소설 『시다르타』
모단 에세이	20	손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3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
경전에서 배우는 지혜	26	황금빛 사슴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28	첫 제사
시십청심	31	新朝何事論與君(신조하사논여군)
따뜻한 이야기	32	탐관오리
운명보다 강한 열정	34	노블리스 오블리제 경주 최부자 집
향기나는 우체통	36	나의 신행기 - 철
알립니다	40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를 모집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63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글·법 정(法 頂)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식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此岸]도 저 세상[彼岸]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 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흐르는 애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거센 격류가

연약한 갈대의 독을 무너뜨리듯이
교만한 생각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기도 볼 수 없듯이
모든 존재 속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 성내는 일 없고
밖으로 세상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초
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이 잘 다듬어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망상을 모조리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알아

애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알아
미움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고 알아
해매임[迷安]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할 인연이 되는
그 번뇌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목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애착이다
그 애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목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덮개*를 버리고
번뇌가 없고 의혹을 뛰어넘어
괴로움이 없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목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덮개[五蓋] : 탐욕, 분노, 우울,
들뜸, 의심 등을 말한다.

- 강론 -

비본질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라

경전은 원래 소리 내어 외우도록
[口誦] 편찬되었다. 눈으로 읽는 것
보다 소리를 내어 외우면, 그 울림
이 영혼에까지 메아리친다. 후렴처
럼 되풀이되는 “수행자는 이 세상

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목
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런 구
절을 눈으로 스치고 말면 그저 지
루한 되풀이일 뿐이다. 성급하고
조급한 현대의 우리들은 이런 반
복의 의미를 모르고 지겹게 여긴
나머지 건너뛰려고 한다.

그러나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가
라앉히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
듯 소리 내어 외우고 있으면, 그것
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속
에 거둡거둡 새기는 일임을 느끼
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
무 뜻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되
풀이해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들 일상적인 삶의 여건은 거
의 비슷비슷한 되풀이다. 그러나
그 되풀이 속에서 심화[深化]가 이
루어져야 평범한 삶에 생기가 돈
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되어서
는 안 된다. 오늘은 오늘로서 새날
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는 말은 현실과 이상 그 어디에도 집
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집착일지
라도 그것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내닫거나 느리
지 않고”는 지나친 과열이나 게으름
을 경계한 말이다. 여기 수행자를
출가한 수행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오
늘 우리들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은 그 어디에도 메이지 않
을 때 거리낌 없는 불성[佛性]이 눈
을 뜬다. 우리를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바로 애착이라는 이 가르침
은 두고두고 새겨둘 말씀이다. 뱀
이 목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비
본질적인 삶의 틀에서 거둡거둡
털고 일어서야 한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요가 수행자 바바 하리 다스는, 그
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
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인용
하고 있다.

한 성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숲 속
에서 홀로 살았다. 어느 날 다른 성자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 성전) 한 권을 주고 갔다. 성자는
날마다 그 책을 읽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쥐가 책을 쓸어버린 것
을 보고,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게 되었다.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필요해지자 이번에는 젓소를 키웠다. 이
렇게 되자 그는 이 짐승들을 혼자서 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젓소
를 돌봐줄 여자를 한 사람 구했다. 숲 속
에서 몇 해를 지내는 동안 커다란 집과 아
내와 두 아이와 고양이 떼와 젓소들과 여
러 잡다한 것들이 마련되었다.

그러자 성자는 걱정이 되었다. 그는 아
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혼자서 살 때, 자신
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돌아켜보았다. 이
제 그는 신을 생각하는 대신 아내와 자식
들과 젓소와 고양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 권의 책이 이토
록 엉뚱한 사태를 몰고 온 것을 알아차리
고 한숨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많다. 하나의 소유물이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경전을 법문法問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시들지 않는 삶의 교훈을 얼마든지 캐낼 수 있다. 그 성자는 경전을 입으로만 외우고, 살아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모든 경전은 읽고 외우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라고 말해놓은 것이고, 또한 엮어서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경전은 책장에 꽂아두거나 선반에 모셔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한낱 소유의 데미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는 잡다한 집이다. 잡다한 집에서는 빛이 발하지 않는다.

이 땅의 불교도들은 경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하고 있다. 물론 경전 자체가 지닌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미숙한 번역에서 오는 거부감에도 그 까닭이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적인 욕구와 탐구력이 모자라는 데 그 첫째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용한 관상쟁이나 쪽집게처럼 꼭꼭 집어낸다는 점쟁이한테는 불원천리하고 달려가면서도, 바로 집 안에 있는 성인의 가르침에는 등을 돌리는 것이다. 경전에서 단 한두 마디라도 번쩍 눈을 뜨게 해주는 교훈을 얻어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을 두고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경전을 단순한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책장을 펼치면 귓속의 귀에 울려오는 성인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어야 살아 있는 법보法寶가 된다. 종이로 된 책은 쥐도 쏘고, 불에 타고, 물에 젖어 없어질 수 있지만, 법문은 그 무엇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는 영원한 빛이다. 그 빛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 눈이 밝아지고 세상

이 밝게 열린다.

경전을 가까이하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루라.

-

『숫타니파타』는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서 불타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요긴한 자료가 되며, 초기 경전의 단순 소박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불교 술어에 익숙

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해줍니다.

경전을 읽을 때의 상황과 심경을 경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읽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배워보고자, 2017년 한 해 동안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기획 연재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또는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새)맑고 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새로운 시작

글 • 김기철(도예가)

어느 날 꼬마 아들을 데리고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 동아일보 사옥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신문회관이라는 데서 무슨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전시장 문을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중요 인간문화재 일사 김봉룡(一沙 金奉龍)옹의 고회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때까지 좀처럼 전시장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귀신에 홀렸는지 안 하던 짓을 한 것이다. 뜻밖에도 작품들이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일흔 평생을 갈고 닦은 나전 칠기 작품들은 동양자수 뺨칠 만큼 섬세하게 정성을 쏟은 것이어서 내 정신을 다 빼놓았다. 나는 살

형편이 못되면서도 서류함 하나를 골똥히 감상하다가 갖고 싶어졌다. 불행히도 이미 임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 환희심이 치솟을 만큼 감격하고 작가 선생님께 허리 굽혀 절하고 나왔다.

이 사건은 큰 감동을 넘어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여태껏 무얼 하고 살았는가. 허투루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화초를 키우고 나무 가꾸는 데는 한몫 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누구라도 와서 물어보면 아는 척하며 자신 있게 말해주었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충격을 가리았하려 인간됨을 썼지만 허사였다. 남들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다.

나이 마흔이 넘도록 사과귀짝 하나 제대로 맞춰 못질 한번 못해 본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고심해도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때로 마치 애늬은이처럼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를 생각해보곤 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다음은 늙어서 잘 사는 게 그 다음 복이라 했다.

우리말에 “젊어 고생은 금을 쥐도 못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늙어서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게 누구라도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무료하지 않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창작을 하는 것이나 농사

를 짓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체합한 시골의 노인들을 보면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두어들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은가. 생산적인 데다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온종일 쾌적한 골프장에서 신나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내려오는 그 뒤끝과 비교할 수 있는가. 이견 남는 게 없고 소모적이다. 쾌락은 더하다. 끝은 허탈하고 허무하다. 뿌듯한 마음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기가 어렵다.

나는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했다. 하지만 오리무중이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했던가. 얼마 안 있어 내 신상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울안에 심을 묘목을 잔뜩 들여놓고 있는데 화분을 들다가 등을 다치고 말았다. 별로 무겁지 않은 화분이라 깔보고 옆으로 드는 순간 일이 터진 것이다. 쇠꼬챙이로 등을 콕 찌리는 것 같은 통증에 입

을 딱 벌린 채 다물 수 없었다. 숨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정도면 바로 병원을 가든지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역지를 쓰고 묘목들을 다 심었다.

자고 나면 괜찮으리라 믿었던 것이 점점 더해갔다. 그러면서도 역지로 출근도 하고 일을 했으니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원체 병원을 싫어하여 별별 짓을 다 해도 소용없었다. 심지어 무당을 모셔다 굿을 다 했을라고... 결국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대충 바로 잡고 3개월이나 직장을 쉬어야 했다. 바로 그 무료하기 짝이 없는 휴직기간에 집사람 친구가 청자 흙 한 덩어리와 백상감, 흑상감을 갖다 주면서, “미련 아빠, 심심한데 이 흙 가지고 장난이나 해보세요.” 하였다. 그는 기껏해야 일이 분 정도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갔다. 그야말로 디스크 고친다는 명분으로 집구석에 갇혀 시간을 죽이고 있던 판이었는데 흙을 가지고 놀게

된 것이다. 그저 주병 따위를 만들고 거기다 운화 상감을 조각해 거실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거였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문화재 가운데 도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한번 시도해볼 만했다.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다고 칭찬까지 하는 걸 보니 나로서는 도자기를 배우는 것이 취향에도 맞는 것도 같았고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당시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도자기 하나만이 내가 해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세주였던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느냐가 문제였다. 당시엔 서울인데도 도자기교실이 몇 군데 없었다. 수소문한 뒤 인사동 어느 후미진 골목 안에 있는 공방을 찾아갔다. 거기에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중늬은이 쯤 되어 보였고 머리가 지지분하게

벗겨져 있었다. 그의 분위기로 보나 거기 와서 배우는 수강생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쌓아 올려놓은 듯한 꽃단지를 보고는 실망했다. 그깟 꽃병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린다니 코웃음만 나올 지경이었다. 무얼 믿고 그렇게 건방이 들었는지... 그 정도면 나라도 가르칠 것 같았다.

여기저기 물어서 배울 곳을 찾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다. 마침내 이천 고려도요라는 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방도 없어서 벧가마니를 쌓아두고 창고도 아니고 방도 아닌 그런 냉돌 공간을 빌려 기삭하며 40일 동안 열심 배웠다.

실습하는 동안 지순탁이라는 사장님은 좀체 만나 뵈 수가 없었고, 이 대장이라는 도공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정말로 수더분하고 성실한 도공이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나를 돌봐주었다. 실습을 마치고 난 뒤 서울 집에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하고 선물과 봉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

기까지 했다. 그는 나를 협수룩하고 가난한 선생으로 알았는데 우리 집에 와 보고선 뜻밖에 돈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한번은 내가 구운 도자기를 가져오려고 이천에 내려갔더니 이 대장이 못 나왔다. 연탄가스에 중독됐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살고 있다는 사택으로 찾아갔다. 그이 사택은 임시로 지은 블록 집이었는데 비바람만 간신히 막을 정도였다. 아주 비좁은 부엌에 어두컴컴하고 좁은 방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는 거기 누워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이밀자 몸을 일으켰다. 사는 형편이 뜻밖에도 열악했다. 방 안에 녹슨 캐비닛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고 부엌엔 냄비 따위가 썰렁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대뜸 선생님이라면 함께 도자기를 하고 싶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무명 도공이었지만 기술로 치자면 첫 손

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 대단한 고려도요 그릇을 다 만들다 시피 하는 절대적인 전통 도예계의 지존자라 해도 지나친 찬사가 아니었다. 그는 몇몇 이름 있는 도예가를 거론하면서 그들이 도자기 가마를 차리자고 제의했으나 다 거절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제의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도자기 공장을 세운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봐놓은 부지가 곤지암 쪽에 있고 돈 2백만 원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역설했다. 나는 도자기 공장할 능력도 안 되고 전혀 마음도 없다고 누누이 설

명했다. 다만 이 대장이 고맙게 해주었고 도자기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니까 힘닿는 데까지 협조할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 일어섰다.

그는 끈질기게 간청했고, 결국 우리는 1978년 곤지암에 도자기 가마를 세웠다. 그 터전은 양지바른 곳이었으며 산이 좋았고 물 또한 좋았다. 그곳은 정말 힘겹게 정한 곳이었다. 터를 정하려고 우리는 아마도 석 달 이상을 일요일마다 광주, 이천 쪽으로 땅을 보러 다녔다. 그러나 마땅한 터를 구할 수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기적처럼 그곳을 찾게 된 것이다.

맑고 향기로운 가게, 다라니 다원 개점 안내

노후화된 옛 찻집을 새로 단장하여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교, 문화상품점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도서관 실내를 단장하여 차를 마시며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도반들과 나누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 '다라니 다원(茶園)'을 개점하였습니다. 앞으로 길상사 신도 및 방문객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실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헤르만 헤세 장편소설 『숫다르타』

글 • 윤부혁(작가)

소설 『숫다르타』는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1922년에 발표된 장편소설이다. 인도의 성자가 살아온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인도의 시(詩)'라는 부제가 붙었다. 작가의 초기 작품에 보이는 낭만적이고 염세적인 경향을 탈피하여 소설의 무대를 동양으로 옮겨 자아 성찰과 내면의 길을 탐색한 작품이다.

헤세는 인간 정신세계를 탐구하여 내적 변화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했던 작가로 서구 작가들 가운데 유난히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많이 썼다. 그가 유명작가이던 시절에 출간된 『숫다르타』

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유럽의 소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헤세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지만 한 곳의 사상에 천착하지 않고 불교에 심취했다. 기독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견된 부모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인도 문화와 동양사상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헤세가 작가로 활동한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대 중 하나로 1,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정신적인 빈곤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그는 '세계대전으로 유럽 문화가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전쟁의 와중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호평을 받았다. 지금까지 유

럽에서 1,000만 권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던 유럽 지식인들을 위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헤세는 소설 끝부분에서 “전쟁의 유일한 효용은 바로 사랑은 증오보다, 이해는 분노보다,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뿐이다”고 썼다.

특히 미국에서는 “데미안 지하 술집” “싯다르타 주점” “마술 극장 집” “황야의 이리 집” 등 헤세 작품의 이름을 빌린 대학생 술집이나 카페가 무수히 생겨났고, “히피들의 성자(聖者) 헤르만 헤세”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오늘의 문예사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현시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작가” 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사부(師父)”로 일컬어지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배경은 기원전 600년경, 인도 카

스트 4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승려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최상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싯다르타는 뛰어난 두뇌와 어진 성품, 출중한 외모를 갖춘 청년이었다. 그는 주위로부터 훗날 브라만의 왕이 될 재목으로 인정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종교, 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뇌하기 시작한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고자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행 길을 택한다.

싯다르타는 구도의 길에서 탁발승을 만나 감각적인 쾌락을 억제하고 명상, 사색,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싯다르타는 또다시 깨달음을 갈망하면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 삶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천박한 자아를 알아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창녀 카말라와 상인

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물질세계 애욕의 기쁨을 누리지만 역시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싯다르타는 궁극적인 진리는 현세에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속의 생활에서 도망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하지만 강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수천 개의 눈을 가진 보디삿타바가 나타나 그를 지킨다. 싯다르타는 보디삿타바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브라만의 성스러운 음인 ‘옴’을 듣게 된다.

싯다르타는 자아의 근본인 아트만과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과의 일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추구한다. 함께 고행하던 고빈다는 경지에 도달한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불가에 귀의하지만, 싯다르타는 사변적인 가르침으로는 해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한다. 그 결과, 정신세계에 머물면서 잊고 있던 또

다른 자아, 즉 감각본능의 세계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 후 싯다르타는 고뇌의 세계에서 벗어나 뱃사공 바스데바와 함께 지내면서 상반된 대립 속에서 자아를 벗어나는 과정을 겪는다. 뱃사공이 된 어느 날 자기의 정부였던 카말라를 만난다. 카말라는 싯다르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과 함께 석가의 열반(涅槃)을 보러 가다가 뱀에 물려 죽는다. 싯다르타는 카말라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측면에서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은 살아가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로, 즉 윤회의 일면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싯다르타의 내면에서 상반된 두 세계의 대립은 없어지고, 궁극적인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오랜 욕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침내 관념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의 가르침을 얻는다. 지상의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대립하는

현상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파악한 '싯다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목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으로서, 원래는 부처님의 어릴 때의 이름이다. 물론 이 소설 속의 싯다르타는 실존했던 부처님이 아닌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헤르만 헤세는 싯다르타라는 가공의 인물이 내면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노장사상 등 동양의 신비주의를 찬양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을 찾기 위해 문명의 기존 양식을 벗어나 인간을 다루고 있는 동양의 초월주의를 강조하며 동서양의 세계가 조화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이 흐르는 강물에서 삶의 소리, 존재자의 소리, 영원한 생성의 소리를 듣고, 그 강물을 통해서 단일성의 사상과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의 초월, 즉 무

상성의 극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생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강'은 이 작품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으로서, 일체의 모순이나 대립을 융화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로 상징화되고 있다.

힌두교와 불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소설 『싯다르타』는 정형화된 종교의 교의와 영혼의 내적 고취 사이의 갈등을 노련하게 적어가고 있다. 자아 성장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을 사는 데에도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헤세는 철학이나 종교, 그 밖의 모든 신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였다. 우리는 모두 순간의 현실을 새롭고, 살아있고, 언제나 바뀌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헤세는 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상징을 통해 이러한 약동과 끊임 없는 변화를 보여준다.

헤세의 또 다른 소설 '데미안'에

서 싱클레어는 결국 완전한 자아를 완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결국 소설 '싯다르타'를 통해 이미 완성된 자아를 가진 주인공이 또다시 모험을 떠나는 과정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헤세의 이 소설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의미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싯다르타의 발자국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

윤부혁 · 1961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년간 삼성물산 등 삼성 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했다. Daum 블로그(<http://blog.daum.net/yoont3>)에서 10년째 인문학 관련 서평을 진행 중이며, 해당 블로그는 2014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는 글쓰기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인문학 지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 고전 명작 읽기를 통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제의 가치가 오늘에도 변하지 않는 공통분모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발송 안내

본모임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발간하여 군법당, 병원, 교도소, 복지단체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연간 소정의 우편비를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도등록, 기도, 인등 접수된 불자님은 길상사에서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소식지 발송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송되거나 오랜 기간 후원 내역이 없는 회원님의 경우 본모임 활동에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내역이 없는 분의 경우 부득이 개별우송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이 있어 후원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글 • 계용목

종이에 손을 베었다.
보던 책을 접어서 책꽂이 위에 던진다는 게 책꽂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붙잡으려 저도 모르게 냅다 나가는 손이 그만 책꽂이 위에 널려져 있던 원고지 조각의 가장자리에 힘껏 부딪쳐 스쳤던 모양이다. 산뜻하기에 보니 장손가락의 둘째 마디 위에 새빨간 피가 비죽이 스며 나온다. 알알하고 아프다. 마음과 같이 아프다.

차라리 칼에 베었던들, 그리고 상처가 조금 크게 났던들, 마음조차 이렇게 피를 보는듯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칼 장난을 좋아해서 가끔

손을 벤다. 내가 살아오는 사십 년 가까운 동안 칼로 손을 베어 보기 무릇 기백 회는 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에 동요를 받아본 적은 없다.

그렇던 것이 칼로도 아니고 종이로 손을 베인 이제, 그리고 그 상처가 겨우 피를 내어도 모를 만치 그렇게 미미한 상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언만 오히려 마음은 아프다. 종이에 손을 베이다니! 종이보다도 약한 손, 그 손이 내 손임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은 처량하게 슬펐던 것이다.

내 일찍이 내 손으로 밥을 먹어 보지 못했다. 선조가 물려준 논밭

이 나를 키워 주기 때문에 내 손은 높고 있어도 족했다. 다만 내 손이 필요했던 것은 펜을 잡기 위한 데 있었을 뿐이다.

실로 나는 이제껏 내 손이 펜을 잡을 줄 알아 내 마음의 사자(使者)가 되어 주는 데만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펜이 바른손의 장손가락 끝마디의 원모(왼쪽 귀통이)에 작은 팔알만 한 멍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 글 같은 글 한 줄 이미 써 놓은 것은 없어도 쓰기 위한 것이 만들어 준 멍울이라서 그 멍울을 나는 내 생명이 담긴 재산같이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것은 온갖 불안과 우울까지도 잊게 하는 내 마음의 위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멍울 한 점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손은 확실히 불안과 우울을 가져다준다. 내 손으로 정복해야 할 그 원고지에 도리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네가 그 멍울의

자랑만으로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무슨 혼계도 같았던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내 손은 불쏘시개의 장작 한 개비도 못 팬다. 서울로 이주를 온 다음부터는 불쏘시개의 장작 같은 것은 내 손으로 패어져야 할 사세(事勢)인데 한번 그것을 시험하다 도끼자루에 손이 부풀어 본 후부터는 영 마음이 없다. 그것이 부풀어서 터지고 또 터지고 그렇게 자꾸 단련이 되어서 펜의 단련에 멍울이 장손가락에 들듯, 손 전체에 굳은살이 짝 퍼질 때에야 위안이든 불안은 다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런만 그 장손가락의 멍울을 기르는 동안에 그러할 능력을 이미 빼앗겼으니 전체의 멍울을 길러보긴 이젠 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

그러나 역시 그 손가락의 멍울에 불안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

생명이기는 하다. 그것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때 나라는 존재의 생명은 없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고도 싶다.

하지만 원고지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손을 못 가지고 그 원고지 위에다 생명을 수놓아 보겠다

는 데는 원고지가 웃을 노릇 같아 손을 베인 후부터는 그게 잊히지 아니하고 원고지를 대하기가 두려워진다. 손이 부푼 후부터는 도끼 자루를 잡기가 두려워지듯이…….

- <조선문단> 1940년 10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계용목 (1904-1961) / 소설가

본명은 하태용. 평안북도 선천 출생으로 1928년 일본 도쿄대학 동양학과에서 수학했다. 단편 소설 <백치 아다다>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방 후 정비석과 함께 잡지 <대조>를 창간했다. 대표적인 단편소설은 <백치 아다다>외 <별을 헨다><청춘도>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상아탑>등이 있다.

『모단 에세이』는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1910년부터 194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 사이에 발표된 수필을 발굴하여 엮은 책입니다.

냉전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월북 작가와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성작가들의 수필을 두루 조명하였습니다.

수필은 소설과 달리 작가의 사상이 많이 녹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우울함이 짙게 깔려 있으면서도, 신변잡기로 탄압을 부리며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우울한 시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생의 의지가 엿보이는 모던 수필을 만남으로 딱딱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영원한 현재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로울 것 같아 역자의 허락을 받아 연재 합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현대 표기법에 따랐으나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언과 옛말을 그대로 옮겼으며, 외래어 지명, 인명, 낱말 등은 현대 외래어 맞춤법에 따랐음을 알려드립니다.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몇 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아이가 약 2주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던 때의 상황입니다. 그 때, 아이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며 말을 시키면 고개를 숙인 채로 '네.' 혹은 '아니오.'로 답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의문스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불편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말하실 문장을 적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을 수 있겠

지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제 느낌을 그대로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입니다. 미리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티비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엄마는 요즘 너한테 말 시키기가 불편하고, 두려워…….'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티비를 보는 상태에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자꾸 화가 나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화가 나는구나?'
'네… 학교에서도 화가 나오.'
'그 화를 참기 힘들어?'
'네…'

‘…….’

저는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듣고,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에,

‘에이, 너 사춘기구나? 네 누나도 고2에 사춘기더니, 너도 그렇지?’ 라고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이의 반응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아이는 아주 많이 바뀐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부엌으로 오더니,

‘무슨 냄새예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부터, 아이는 약 2주 동안 하던 행동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손윗사람은 손아

래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훈련되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거나, 말의 효과가 낮아진다거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강한 상태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건, 공감대화에서는 그 때의 느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상대에게 말해주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약한 느낌들이 느껴져요.’ 라고 말하면, 상대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만약, 상대가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지 못한 반응, 비꼬거나 뼈뺌하게 나올 때는 이 반응에 대한 나의 느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3회의 반복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남자 중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계속 만만하게 여기며 대하는 중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업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나 해주세요.’

‘수업 말고 재밌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군요?’

‘네, 수업은 맨날 하잖아요, 선생님 남친 이야기나 해주세요.’ 학생의 말투는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너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들어요.’ 하고 잠시 시간을 두고,

‘선생님은 너희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어요. 같이 성장하는 방법이 공부만은 아니지요.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너의 말투를 들으면 마음이 위축되고, 불편해져요…: 선생님한테 말할 때 지금보다 공손하게 말해주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떨지요?’ 라고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를 하였다면 학생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혹은, 잠시 시간을 둔 후에,

‘선생님은 너의 말투에 마음이 너

무 불편해요. 오늘 수업 후에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와줄래요?’ 라고 한 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위와 같이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공감, 관심이 배려, 인정이 필요한 학생으로 생각됩니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소통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시도할 수 있겠지요?

답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화에도 나오지만, 닭은 사람을 위해 새벽마다 동이 트는 것을 알려주어서 상으로 머리에 벼슬을 받습니다. 닭은 적을 향해 세우는 날카로운 발톱과 무리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행동이 칭송되어 왔습니다. 닭의 해에도 더욱 성장하는 날들을 만드시기 바라며, 성장을 위하여 오늘 누구에게 ‘약함, 그대로 드러내기를 해보시겠어요?’

황금빛 사슴

그 옛날 바라나시에서 브라흐마
 닷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보살은 사슴으로 태어났는
 데, 날 때부터 그의 몸은 황금빛이
 었다. 그는 5백 마리의 사슴에게 돌
 러싸여 숲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를 일러 니그로다 사슴이라 했다.

그때 왕은 사슴 사냥에 빠져 사
 슴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늘 생업에 바쁜 백성들을
 불러내어 날마다 사슴사냥을 나
 갔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드넓은
 궁전의 뜰에 사슴이 좋아하는 먹
 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
 슴 떼를 몰아다 넣은 뒤 문을 닫
 아 버렸다. 왕은 뜰에 그득하게 간
 혀 있는 사슴들을 바라보며 흐뭇
 해했다. 그러다가 그 우리 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황금빛 사
 슴을 발견하고, 그 사슴만은 다치

지 않도록 하라고 시종들에게 특
 별히 일러두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때가 되면
 뜰에 나가 사슴을 한 마리씩 활로
 쏘아 잡았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저리 피
 해 다니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어 갔다.

니그로다 사슴은 많은 사슴들
 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
 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이쪽
 에서 차례를 정해 놓고 스스로 처
 형대에 오르기로 했다. 다른 사슴
 들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주지 않
 기 위해서였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고, 자기 차례가 된 사
 슴은 제 발로 걸어가 처형대에 목
 을 대고 가로누웠다. 그러면 요리

사가 와서 그 사슴을 잡아갔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 뱀 암사슴
 의 차례가 되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니그로다 사슴은 “당신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오시오. 대신
 내가 가겠소.”하고 처형대로 나아
 갔다.

황금빛 사슴이 처형대에 누워 있
 는 것을 본 요리는사는 왕에게 달려
 가 그 사실을 알렸다. 왕은 뜰에 나
 와 니그로다 사슴을 보고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누워 있느냐?”

“대왕이여, 새끼 뱀 어미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
 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이
 를 인간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어미사슴
 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대왕이여, 둘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지만 다른 사슴들의 목숨은
 어찌 합니까?”

“좋다, 그들도 구해 주리라.”

“그럼 사슴들은 죽음을 면하겠
 지만, 다른 네발 가진 짐승들은 또
 어찌합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
 라.”

황금빛 사슴은 다시 간청했다.

“네발 가진 짐승들은 안전하겠
 지만,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합
 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대왕이여, 새들은 안전하겠지
 만 물속에서 사는 어류는 어찌 합
 니까?”

“착하다, 니그로다여! 그들도 모
 두 안전하게 해 주리라.”

이와 같이 보살은 왕에게 모든
 생물의 목숨을 보호해 주도록 간
 청 했다. 그렇게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사슴들과 함께 살던 숲 속
 으로 돌아갔다.

(자타카 12)

첫 제사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루하루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떠날 날이 없다. 기일을 앞두고 새삼 아버지를 위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지방과 축문을 써보곤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하루하루 다가오는 아버지를 기리는 날을 위한 더욱 청결한 마음의 준비가 되곤 한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제삿날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자라왔다. 옛날 같으면 부모를 잃으면 망극한 죄를 범하였다고 3년은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다. 어디 그 뿐인가. 집안에 상방을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제를 올렸었다. 최소한 한 해는 그리하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가족이 집단으로 생활하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경제를 상전으로 모시는 핵가족화 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이러한 의식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삶의 물질적인 수준은 그 옛날 농경사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인간의 삶 그 자체의 질을 높였다고는 선불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인성을 이루는 필요조건이라 했을 때 그것과의 인과관계가 꼭 비례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제사란 무엇일까? 가신 분이 돌아와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드시고 가시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 남은 자식들의 생색내기일까, 아니면 그저 세상 눈이 무서워서 지내는 것일까. 그도 아니라면 왜 돌아가신 날 제를 올리게 되었을까. 우선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에 대한 역사학적인 연구는 차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방식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현실 세계는 거미줄과 같이 허공에 서서 어우러져 서로가 지탱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찮게 보이는 희미한 선들의 어울림 속에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더 나아가 이름 모를 그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제사를 생각해볼 때 그

의미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을 그 자체로 사바세계라 하여 늘 업이 따른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알게 모르게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최소한 제삿날만큼은 덕을 쌓는 날로 하기 위한 선조의 사상이 배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제사에 대한 나의 소견이다.

자식의 도리를 생전과 생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생전의 도리는 동몽선습,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 선조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 생후에 대한 가르침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시산을 가져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최소한 나의 형제들만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서없이 담아 본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최소한 나와 동생 그리고 두 며느리만은 제사상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청결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몸가짐과 마음가짐까지도 말이다. 이때부터는 하찮은 미물까지도 귀히 여기고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어찌 말과 행동뿐이겠는가. 명상하는 마음으로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가신 분의 뜻만을 기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제사상에 올릴 제수품 하나하나가 이 우주세계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날만큼이라도 자비심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가격을 깎지 말 것이며, 늘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며,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차를 운전할 때도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리라. 딸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날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다면 그 순간부터 위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리라. 내 입 밖으로 내뱉는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발걸음 하나에도 작은 미물이 쓰러지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뇌리에 담아야 하리라.

그래서 최소한 이날만이라도 업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니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 형제들은 이를 지켜야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살아생전 아버지의 뜻인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효도일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아버지를 그리며…….

新朝何事論與君(신조하사논여군)

글·小龍 이용현(독자)

當地時也傾頽俗 (당지시아경퇴속) 하고
 思我欺公勢絃紛 (사이기공세현분) 하니
 百羅麗風孰爲求 (백라려풍숙위구) 리고
 鴨水洛洛誰轉沔 (압수낙락수전운) 이리요
 奉先廟上繞香煙 (봉선묘상요향연) 이네
 三元吉日何虛送 (삼원길일하허송) 리오
 歡聲競出千家裡 (환성경출천가리) 하고
 昇平兆朕勝前年 (승평조짐승전년) 이네

(國譯) 이 새 아침에 무엇을 그대와 이야기 할까?

이 땅은 지금 마침내 미풍양속이 퇴폐하고
 사리사욕으로 공을 속이고 세력 다툼만 하니
 백제 신라 고구려 때의 기풍은 누가 되살리고
 압록강 물은 누가 도도히 흐르게 할 것인가?
 조상을 받드는 사당엔 차례 올리는 향연이 이네.
 정월 초하루의 이 길일을 어찌 허송하리오.
 집집마다 기쁜 소리가 다투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태평한 세상이 될 징조이네.

탐관오리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활동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정조 임금도 정약용에게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라고 명했습니다.

정약용은 온갖 악행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감시하기 위해 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하고 마을을 살피던 정약용은 땅대부분을 한 탐관오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 흉지라 속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다음 그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누엿누엿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저녁 시간이니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집마다 피어오를 터인데, 이상하게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한 집에 들러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집주인은 물은 얼마든지 마시라면서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채워드릴 수 없다며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정약용이 잠자리를 청하자 주인은 안방을 내주며 자신의 식구들은 부엌 방에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주인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의 살림이 이렇게 궁색할 줄이야…….’

정약용은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전부터 이렇게 끼니 걱정을 하고 사셨습니까?”

주인은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빛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답니다.”

정약용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빛이라뇨? 무슨 일로 빛을 지셨습니까?”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해 전 관가에서 꾸어 주는 곡식을 갚다 먹었는데 그 이자가 어찌나 비싼지 빛을 갚을 길이 없어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곶에 곶으로 쳐서 논밭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 역시 그 탐관오리의 짓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관에서 관리하는 곡식을 빌려준 뒤 받아들일 때는 돈으로 높은 이자를 쳐서 폭리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정약용은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모두 상감께 아뢰어 썩은 관리들을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리하여 착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리라.’

정약용은 조정으로 돌아와서 날날이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조는 그 즉시 못된 탐관오리와 그 밑의 벼슬아치들을 쫓아내거나 멀리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이 달의 명언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 다산 정약용

* 출처 : 따뜻한 하루

노블리스 오블리제 경주 최부자 집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KBS ITV <한국사 傳>에서 한국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조명하며 12대-400년 부자의 비밀 경주 최부자 편을 방송한 적이 있다.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400년 동안 이어온 부자의 비밀을 밝혀내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주었다.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라는 속담이 전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교훈을 전하였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했다.

경주 최부자의 파(派)시조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되어 왜군을 물리친 최진립이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인조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6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여 끝까지 항쟁하다 순국했다. 후에 최진립은 정무공의 시호를 받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양탄 이후 나라가 궁핍해지자 최부자 집은 관개 시설을 확보했다. 관개 시설 확보로 새로운 농사법인 이양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력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소작농에게 다른 지주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소작료를 받고 중간 마진을 없애는 등 지주와 소작농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다. 지주와 소작농이 잘 살고자 하는 상생의 원리! 이것이 경주 최부자의 400년을 이어온 부의 비

밀이었다. 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가훈을 만들었고 최씨 문중 모두가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흥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가훈은 IMF 외환위기 당시 M&A로 몸살을 앓고 난 지금 그 결과에 대한 혹독한 잔금을 치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자 최부자 집의 12대 마지막 부자 최준은 백산 안휘제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견디며 재산을 기꺼이 조국

의 독립을 위해 바쳤다. 해방이 된 후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게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400년간 모아온 전 재산을 영남대학의 전신인 계림대와 대구대에 기부했다. 최준 선생은 1970년 세상을 뜨면서 "나라가 독립되었으니 근심이 없고 만석꾼의 재산도 없으니 도둑 걱정도 없다며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400년을 이어온 부(富)의 비밀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한다.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2.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4. 흥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5.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은 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6.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7. 물건을 아껴 쓰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의 신행기 - 철

글 • 김홍수(회원)

국어사전에 “철”이라는 단어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내가 언제부터 철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철없이 산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눈다면 20대까지는 부모님이 살아주시는 시기이고 30대에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세대, 6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세대, 70부터는 마무리하는 세대인 것 같다.

60이 넘어야 내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세대가 되었으니 70이 되어야 철이 든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야 실감하게 된다.

30이후는 내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 오늘에 이르렀는지 세월이 무상함을 이제야 실감한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성공한 인생이었나!

실패한 인생이었나!

내 인생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

자문자답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마무리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답이 나왔다. 내 자식에게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라!”라고 말하고 싶다. 내 인생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반문하면서 말이다. 이제 70이 다 되어서야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하면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짧은 내 인생이다.

대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지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다. 자식이나 종교에 의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찰이나 교회에 가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 본다. 나 역시 70줄에 접어들려고 하니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내가 불교를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로 기억한다. 대학시절 대불연 학생동아리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었는데, 고모님을 따라 몇 번 절에 갔었던 것이 성장하면서 불교를 나의 종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직장 선배의 집에 놀러 갔었다. 피아노 위에 불상(佛像)이 덩그러니 놓여있길래 선배님께 저렇게 불상을 방치하면 되겠느냐며 내게 주시면 잘 봉안하겠다고 말했다니 흔쾌히 응하여 우리 집으로 이운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우리 집으로 모셔온 부처님도 기물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방치한 것은 마찬

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주교 신자인 직장동료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는 “우리 천주교인들은 십자가나 예수님, 성모마리아 상을 잘 모시는데 불교신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게 아닌가.

아차! 싶어 늦은 감이 있었으나 거실 책장 가운데를 정리하여 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향로, 촛대, 다기, 향꽃이, 정화수 주전자, 퇴수기까지 유기그릇으로 마련하고 장엄하지는 않지만 여법하게 부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 셈이다.

우리네 어른들은 집에 무엇을 모신다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들어왔으나 나는 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때는 퇴근길에 시내 포교당에 들러 저녁예불에 동참하기도 했었고, 직장 불교모임에서 경전공부에 정성을 모은 적도 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아는 절의 새벽예불에 갔다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이제는 초파일 신도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 모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독송하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불교로 만족하고 있다. 아무튼 나는 불교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씻고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정화수를 올리고 3배를 드린 다음 일을 시작했었다.

그러다 이제는 천수심경, 이산해연선사발원문, 반야심경 또는 천수심경, 반야심경, 무상계, 법성계를 격일로 봉독하고 일요일에는 천수심경, 관음정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

6년 전인가 한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언약을 받았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동차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나의 강요에서인지 자동차가 생긴다는 기쁨에서인지 흔쾌히 언약을 하였다.

한 1년은 삼배를 잘 올리며 약속을 지키는 것 같더니 만 그다음은 기대치에 못 미치더니 이제는 아예 삼배는 없어졌다.

왜 우리아빠는 저렇게 부처님 전에 열심인가? 하고 항변 섞인 말을 할 때 도가끔 있는 듯하다. 왜 그럴까?

“기도”인가? 기복인가?

나 역시 그런 생각이 가끔 있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의지하고 싶어서인가! 아무리 바빠도 삼배는 빠지질 않는다.

법정 스님의 어느 글에서 동짓날을 새해 첫날로 하면 맞겠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처양에 음력이 먼저 알려졌었다면 서력보다 음력으로 통일되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피력한 것을 읽었다.

나 또한 비록 서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지를 새해 첫날로 하고 싶은 마음이다.

지난 설에 스님께 세배 갔더니 법상 스님이 쓰신 “금강경과 마음 공부”라는 책 한권을 선물 받았다.

며칠 있으면 동지다. 동짓날부터 매일 저녁 10시면 금강경을 봉독하고 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기도이든 기복이든 금강경을 봉독하고 좌선을 하다보면 길이 나올 것이 아닌가 싶다.

금강경 봉독, 좌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작심 3일을 넘기고자 하는 심정이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다시 꺼내 읽었다. 새해초가 옛 그제인 것 같았는데 12월이 중순으로 접어들었다. 모두들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한다. 그 계획이, 그 반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점검해보는 시기인 것 같다. 세월이 우수와 같다고 하는

데 이를 실감하는 시기는 60이후에 절실히 느낀다. 60중반이 지나면서 더 가속적인 것 같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있는 이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꼭 오고야 만다. 나 역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는 저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심적 변화라고나 할까?

힘이 있는데까지 노력해야 할 사명을 짊어졌다.

“諸行無常(제행무상)”이다.

“應無所住(응무소주) 而生其心(이생기심)”해야 할 것이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를 모집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모임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글을 연재할 작가와 문학에 소질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원, 신도, 독자 중에서 살면서 삶의 지혜가 되는 글,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감동, 깨달음을 준 문구나 본인의 생각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 드러내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슴 찡하게 느꼈던 감동이나 속마음을 글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또는 몸소 느낀 자연의 소중함,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도 좋고, 수행과 신행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안의 깊은 느낌이나 하루하루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원고를 널리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작가의 인문학

(여행, 음식, 민속, 역사, 교육, 사람, 책, 과학, 철학, 문화, 공연, 음악, 건강 등)

- 수필, 논설, 시, 시조, 독후감, 편지글

- 그림, 사진, 카툰(만평, 풍자, 유머 등)

- 알찬 소식 등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모집 안내

- 작품 및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본모임 전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투고자의 의향에 따라 원고료를 유, 무상 처리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단순 투고일 경우는 무상 투고를 전제로 합니다.

■ 참고 사항

1.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분량을 맞추어 주세요.
(지면 최소 1면 ~ 최대 3,4면/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2.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 띄어쓰기를 확인해주세요.
3.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고 단락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긴 문장은 도중에 잘라서 독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주세요.
4. 문장 부호에 유념하고 가능하면 컴퓨터 용어와 한자는 삼가 주세요.
5. 너무 짙은 종교색은 금하고, 종교 비판, 폄하는 피해 주세요.
6. 지극히 교훈적이거나 상대를 폄박하는 내용은 삼가주세요.
7.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낼 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내 (새)맑고 향기롭게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월간 맑고향기롭게를 1994년 5월 창간(2017년 1월 통권 263호)하여 회원과 길상사 신도를 비롯하여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동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모임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를 주는 알차고 유익한 글이 담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맏고 향기롭게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직접 발급 및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사)맏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맏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맏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모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모임에 가입한 후원회원님의 개인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hometax.go.k)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 중앙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인터넷 서비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모임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02.741-4696)

맏고 향기롭게 2017년도 달력 우수 안내

11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지난 12월 9일 2017년도 달력을 우송해드렸습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후원을 하셨는데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분도 있으니 이사를 하였음에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도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 목적으로 12월에 후원하신 분에게는 1월에 일괄적으로 달력을 우송해드립니다. 2017년 달력은 본모임 광주지부 본부장이신 '우천교현' 교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길상사 창건 19주년 기념법회와 봉사 팀별로 송년모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일) 맏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19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되어 헌다, 헌화, 주지스님 법문, 길상사 신도 및 맏고향기롭게 모범봉사자 감사패 시상, 길상사 재무보고 등의 순서로 원만회향되었습니다. 당일에는 길상사신도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길상사의 창건일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사)맏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별로 간소한 송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별도의 행사와 자리를 마련해도 대

접받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없다면서 참석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봉사 현장에서 활동을 마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간에 서로 격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본모임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며 나누었기 때문이라 여기며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늘 응원해주시는 길상사 신행단체회와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말 김장 나눔 원만회향

본모임은 연말을 맞아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등 27개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은 무의탁노인·결식아동·장애인 등 1,000여 가구와 위탁운영 중인 월곡청소노년센터를 비롯해 해광맹인복지회, 장애인시설 지계의집, 성북구 4개 노인정,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2016년 맏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절임배추 1만kg(4천여 포기)과 양념장 3,500kg를 김장에 사용했으며, 회원을 비롯해 길상사 신도, KTX나눔이회 등 봉사자 120여 명이 동참했으며, 광주모임과 대구모임에도 김장 양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모임은 IMF 이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결식이웃 후원사업으로 매주 목·금요일 밑반찬 2가지와 분기별 쌀 구입용 상품권 등을 소외이웃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2017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밀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새해 새마음으로 참여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실 분은 연락해주세요.

- 반찬 나눔은 매주 밀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5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릉이~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

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생태 자원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모집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중에서 자연활동, 환경

운동, 생태적인 삶과 실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봉사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판매, 홍보 활동과 생태현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번호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5, 6, 12, 13, 19, 20, 26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2, 9, 16, 23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4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21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3, 10, 17, 24, 31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보호사회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 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4회차 기도가 12월 6일(일)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신정합동차례

- 일시 : 1월 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4일(수) 오후 9시 ~ 1월 5일(목) 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 일시 : 1월 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월 7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14일(토) 오후 8시 ~ 1월 15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월 1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월 2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설날 합동차례

- 일시 : 1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정초기도

- 일시 : 1월 30일(월) 오전 9시 50분 ~ 2월 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합동차례	1월 1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4일(수)	저녁 9시	극락전
성도재일	1월 5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월 7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보름기도	1월 12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14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지장재일	1월 15일(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월 21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합동차례	1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정초기도	1월 30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 · 윤상용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삶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다.
 삶의 배후에 죽음이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영원한 낮이 없듯이 영원한 밤도 없다.
 낮이 기울면 밤이 오고 밤이 깊어지면 새날이 가까워진다.

- 인도기행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난다> 中 -

청정한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자연은 아름다워,
사람은 그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먼지 한 티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소유욕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먼지는 먼지를 불러 우리의 거울은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물질이 마음을 가리어,
각종 균을 창궐케 하였으며,
우리들 본래의 복전은 다름 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까마득히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합니다.

청정한 마음 한 번,
청정한 빛 한 줄기,
청정한 풀씨 한 톨을 행구어
푸른 하늘 아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터가 삭막하고 혼탁하여도,
연꽃이 진흙탕에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자신의 둘레를 맑고 향기롭게 가꾸듯,
우리 또한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고자 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올해에도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실천행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